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3, No. 127, pp.179-229
<https://doi.org/10.29212/mh.2023..127.179>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베트남전쟁기 북한의 성명외교 연구(1964-1972)

김상범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

- 목 차
1. 서론
 2. 북한 성명외교의 정의
 3. 베트남전쟁기 북한 성명외교의 전개
 4. 베트남전쟁기 북한 성명외교의 분석 및 평가
 5. 결론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베트남전쟁기 북한이 외교를 위해 정부 차원의 성명을 어떻게 활용했으며, 이것의 주요 내용, 특징 및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다. 북한 정부 차원의 성명을 분석하는 것은 북한의 외교적 목표 및 전략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북한에서 외교 관련 정부 차원의 성명은 크게 정부 성명, 외무성 성명, 외무성 대변인 성명으로 나눌 수 있다. 정부 성명은 최고 수위의 성명으로 전략적 차원에서 발표된 반면, 외무성 및 외

무성 대변인 성명은 정부 성명을 지지하는 전술적 차원에서 발표되었다.

1964-1972년 동안 북한의 정부 차원의 성명은 총 113개가 발표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1964년 1회, 1965년 9회, 1966년 14회, 1967년 14회, 1968년 12회, 1969년 14회, 1970년 13회, 1971년 12회, 1972년 24회가 각각 발표되었다. 성명들의 주요 내용은 미국의 베트남 침략행위 비난, 북한의 대베트남 무상 지원,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캄보디아-라오스 간 반제연합전선 형성 및 강화, 파리평화협상에서 북베트남 정부의 입장 지지 등이었다. 북한의 성명은 단순한 레토릭을 넘어 현실이 되는 특징이 있었다.

북한의 성명외교는 자주라는 상징과 민족해방투쟁이라는 전략이 포함된 개념이었다. 북한은 성명외교를 통해 자주를 전제로 반미를 통한 위기 공유 및 공동 대응, 지도자의 정통성 강화 및 내부의 생산과 동원의 정당성 확보, 한국전쟁 회상 전략을 통한 사회주의권의 단결과 세계혁명에서 민족해방투쟁이 가지는 역량을 인정받으려 하였다.

주제어 : 베트남전쟁, 북한, 성명외교, 정부 성명, 외무성 성명, 외무성 대변인 성명

(원고투고일 : 2023. 4. 12, 심사수정일 : 2023. 5. 14, 게재확정일 : 2023. 6. 5.)

1.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베트남전쟁(the Vietnam War)기 북한이 외교를 위해 정부 차원의 성명(statement)을 어떻게 활용했으며, 이것의 주요 내용, 특징 및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다. 북한은 항일무장투쟁과 한국전쟁(the Korean War)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중소분쟁(the Sino-Soviet dispute)의 시기에 자주라는 외교적 기조와 원칙을 수립하였다. 이에 기반해 제3세계 및 비동맹운동 국가들의 민족해방투쟁을 경제·군사·외교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외교의 목표였던 자신들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외 학계에서는 북한이 외교적으로 가장 큰 성과를 이룩한 시기로 1960-1970년대를 지목하고 있다.¹⁾

그렇다면 북한이 자국의 이익과 목표 달성을 위해 주로 활용했던 외교적 수단은 무엇이였을까?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 외교를 위해 정부 차원의 성명을 적극 활용하였으며, 이 성명들이 가지는 상징과 전략에 주목하고 실행에 옮김으로써 그들이 목표로 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밝힐 것이다.

북한에서 외교 관련 정부 차원의 성명은 크게 정부 성명(Statement of Government), 외무성 성명(Statement of Ministry

1) B. K. Gills, *Korea verse Korea-A Case of Contested Legitimac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6); 정규섭, 『북한외교의 어제와 오늘』 (서울: 일신사, 1997); 백성호, “북한 외교의 형성과 전개,” 고유환 엮음, 『로동신문을 통해 본 북한 변화』 (서울: 도서출판 선인, 2006).

of Foreign Affairs), 외무성 대변인 성명(Statement by Foreign Ministry Spokesman)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성명들은 전략과 전술적 차원에서 자신들과 관련된 대외적으로 중대하거나 긴급한 상황과 사건에 대한 인식, 평가 및 대응 등 공식적인 정부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 정부 차원 성명을 분석하는 것은 북한의 외교적 목표 및 전략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현재까지 학계에서는 북한의 정치·외교·안보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성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부족했다. 이것은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연구는 신정화의 연구²⁾가 유일하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북한 외교에 대한 불신과 외교에서 구사하는 수사(rhetoric)에 대한 진정한 의도 해석의 어려움 및 정책적 피로감이 큰 요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그보다 북한 외교와 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정부 차원의 성명에 대한 학문적, 정책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이 더 큰 원인이라고 본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북한 외교에서 정부 차원의 성명이 가지는 학문적, 정책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과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1964년 8월부터 1972년 10월까지이다. 1964년 8월 통킹만 사건(Gulf of Tonkin Incident)과 미국의 북베트남 폭격은 양국 간 전투가 개전,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1968년 파리평화협상(Paris Peace Negotiation), 1972년 10월까지 협상, 재확진의 과정을 거치며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이에 양국은 위기의 지속과 확산에 대한 인

2) 신정화, “북한 ‘정부성명’의 대외정책적 함의-1990년대 이후 대마일 정부성명을 중심으로,” 『통일부 신진연구자 북한 및 통일 관련 논문집 1: 정책, 정치』(서울: 통일부, 2002).

식을 공유하며 북한의 대베트남³⁾에 대한 유무형의 지원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베트남전쟁기는 북한이 특정 국가를 상대로 가장 많은 정부 차원의 성명을 발표했던 시기였으며, 이로 인해 북한의 성명외교는 정치·외교적 상징과 북한의 전략을 명확히 하는 외교적 수단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성명외교를 연구하기 위해 문헌연구(Literature Review)와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문헌연구는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기존의 문헌을 검토하는 연구방법으로, 특정한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 상황과 연구조건을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⁴⁾ 내용 분석은 텍스트, 메시지의 내용과 본질을 체계적이고 엄격하게 분석해 관련 대상, 내용, 전달방법, 효과성을 도출하는 방법이다.⁵⁾

본 연구의 주요 자료는 베트남전쟁기에 발행된 로동신문이다. 북한은 외교적 측면에서 로동신문에 대해 대외정책의 적극적인 선전자이며,⁶⁾ 자신들의 목표와 이익의 관철, 이를 위한 전략 이행을 위한 전투적 수단으로 정의하고 있다.⁷⁾ 이러한 의미에서 로동신문은 첫째, 당과 국가의 노선, 정책 방향을 국내외에 보내는 신호이며, 이에 대한 미묘한 변화가 가장

3) 본 연구에서 베트남을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NLFSV: The National Liberation Front of South Vietnam)과 베트남민주공화국(DRV: Democratic Republic of Vietnam)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겠다. 이 글에서 베트남의 북한식 표기인 월남은 베트남전쟁기 북한의 언어정책에 따라 월남으로 변경된 점을 감안해 로동신문 원문을 인용해 북한식 표기를 따르기로 하겠다.

4) D. Tranfield, D. Denyer, P. Smart, "Towards a Methodology for Developing Evidence-Informed Management Knowledge by Means of Systemic Review," *British Journal of Management*, Vol. 14(2003), pp. 207-222.

5) Marilyn Domas White and Emily E. Marsh, "Content Analysis: A Flexible Methodology," *Library Trends*, Vol. 55, No. 1 (Summer 2006), p. 22.

6) "축하문-〈로동신문〉 기자, 편집 일 군들에게," 『로동신문』 (1965년 11월 2일).

7) "출판물은 당의 위력한 사상적 무기-당보는 우리 사업과 생활의 훌륭한 교과서," 『로동신문』 (1965년 11월 1일).

빨리 나타나는 곳이기도 하다. 둘째, 외교적 사안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언어로 비판하거나 열정적인 언어로 호응하는 등 대외정책의 기초와 방향성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셋째, 로동신문은 인민들에게 공개하는 외교 문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로동신문이 중국의 인민일보와 더불어 세계의 어느 신문보다 더 외교 문제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⁸⁾ 상술한 자료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베트남전쟁기 북한의 성명외교를 연구하기 위해 정부 성명, 외무성 성명, 외무성 대변인 성명 총 113개⁹⁾의 주요 내용, 특징 및 의미를 분석대상으로 삼는다.

본 연구는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북한의 성명외교에 대해 정의하고 베트남전쟁 이전 성명외교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3장에서는 베트남전쟁기를 전쟁의 양상에 따라 개전, 확전기 및 협상, 재확전기로 구분하여 성명외교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4장에서는 베트남전쟁기 북한의 성명외교를 분석, 평가하겠다. 5장 결론에서는 연구의 요약과 함께 성명외교에 대한 중장기적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겠다.

8) Allen S. Whiting and Robert F. Dernberger, *China's Failure: Foreign Policy and Economic Development in the Past-Mao Era* (New York: McGrawHill, 1977), p. 40.

9) 연도별 정부 차원의 성명 발표 형식, 회수, 내용은 <표 1>-<표 5>를 참고.

2. 북한 성명외교의 정의

가. 성명외교의 정의

북한에서는 성명을 “개인이나 단체 또는 국가가 어떤 문제에 대한 자기의 견해, 태도 및 이해관계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것¹⁰⁾”, 더 나아가 “자기 나라의 중요한 정치, 법률적 문제를 포함하여 다른 나라와의 관계 문제 또는 중요한 국제적 사건에 대한 견해와 입장 표명하는 국가적인 문서”로 정의하고 있다.¹¹⁾ 다시 말해, 북한 정부 차원의 성명은 특정 국가와의 외교관계에서 국가 차원의 의견이나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 차원의 성명은 특정한 국내외적 상황과 그와 관련된 민감한 이슈를 다룬다. 그러한 이유로 정부 차원의 성명들은 한 국가의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라 외국 정부나 해당국 대사관에서 발표하는 성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평가, 대응을 포함하고, 이를 관련 당사국들과 공유하는 상호작용의 성격을 지닌다. 그러므로 정부 차원의 성명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국가들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제적으로 민감한 이슈들을 해결하는데 유용한 수단이다.

10) 조선로동당출판사, 『대중정치용어사전』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4), pp. 252-253.

11)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증보판)』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6), p. 737.

정부 차원의 성명은 국가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므로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전제로 자신의 목표를 구체화하고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상징’이라는 수단을 사용한다.¹²⁾ 상징은 외교적 언어에서 매우 중요하며, 성명 그 자체가 고도로 압축된 상징성을 가진다. 정부 차원의 성명은 외교적 언어를 통해 특정 국가, 특정 상황 하에서 외교적 의례와 레토릭이 상징하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표현하는 외교적 소통의 과정이다. 정부 차원의 성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상징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창조적인 행동, 즉 전략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다.¹³⁾ 그러므로 성명을 이해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상징적 의미 파악과 실제 행동 예측이다.

특히 유사한 같은 역사제도적 배경을 가진 국가들 사이에서의 정부 차원의 성명은 그들을 하나의 단위로 행동하는 것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외교적 상징은 관련 국가에 대한 이익의 일체화, 공통성, 정체성 및 감정의 역사를 내포하며, 상징과 그 가치 보존을 위한 전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¹⁴⁾ 상징을 바탕으로 한 상호작용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강화, 발전시키는 계기로 활용하며,¹⁵⁾ 정의(justice)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바탕으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도 한다.¹⁶⁾ 그러므로 성명을 통해 상호작용을 하는 대상자들은 상황

12) A. N. Whitehead, "Uses of Symbolism," *Daedalus*, Vol. 87, No. 3 (Summer 1958), pp. 111-112.

13) Harald Wydra, "The Power of Symbols-Communism and Beyond,"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tics, Culture, and Society*, Vol. 25, No. 1 (September 2012), pp. 63-66.

14) *Ibid.*, p. 113.

15) Sheldon Stryker, "The Vitalization of Symbolic Interactionism," *Social Psychology Quarterly*, Vol. 50, No. 1 (March 1987), p. 91.

16) Georges Fauriol, Eva Loser(eds), *Cuba: The International Dimension* (New

인식, 대응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공통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이러한 성명의 정치는 특정 국가, 특정 상황 하의 정치적 안정성과 상대적인 안도감을 제공하며 내부 동원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상술한 내용을 종합해 본 연구에서 성명외교를 '성명을 활용해 한 국가의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 방식의 한 형태'로 정의하기로 한다.

북한은 체제 유지·발전과 관련한 국제적 주요 현안에 대해서 자국의 대내외 정세 인식을 정리, 평가하고 이것을 국제사회와 소통하는 수단으로서 정부 차원의 성명을 이용해 왔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부 차원의 성명은 당시 대내외의 상황, 발표 시점, 내용은 북한의 정세 인식, 평가, 대응 등 국가적 전략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방향성을 제공한다. 정부 차원의 성명이라고 하더라도 각 성명이 가지는 상징과 전략이 가지는 외교적 무게감은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다. 동일한 현안을 대상으로 한 정부 차원의 성명이라도 정부 성명은 전략적 차원에서 원칙적 입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비해 외무성 성명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은 정부 성명을 확인하고 강조하기 위한 다소 전술적 차원의 성격을 지닌다. 이것은 정부 성명이 타 기관의 성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표 수가 적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¹⁷⁾

북한의 성명들은 국가 전략 및 외교적 목표, 대내외 정세 인식 및 평가, 국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명의 형식과 내용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북한의 대내외 인식 및 외교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정부 차원 성명에 대한 분석은 필수이며, 성명들의 형식, 발표의 횟수와 관

Brunswick and London: Transaction Publishers, 1990), pp. 215-217.

17) 신정화, 앞의 글, p. 181.

런 주제의 상관성을 살펴보면 이를 더욱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¹⁸⁾

나. 성명외교의 역사적 전개(1948-1963)

북한의 성명외교는 한국전쟁의 시작과 동시에 본격화되었다. 북한은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의 한국전쟁에 파견, ▲미군의 이북 지역 폭격에 대한 항의, ▲미국의 세균전에 대한 국제적 비난 여론 형성, ▲정전 협정 체결을 위해 대외적으로 성명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성명들은 수상 김일성, 외무상 박헌영, 남일 등 정부 차원 성명의 성격을 지닌 개인 명의의 성명이었다는 특징이 있었다.¹⁹⁾

로동신문상 현재와 같이 개인 명의를 아닌 정부, 외무성, 외무성 대변인 성명 등 정부 차원 성명의 형태를 띤 최초의 성명은 1955년 8월 11일 이승만 정권이 38선 이남의 중립국 감독 위원회 구성원들에 대한 철거 요구를 도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발표한 외무성 성명이었다.²⁰⁾ 북한 최초의 정부 성명은 1956년 5월 31일 조선인민군 병력 축소에 관한 것이었다. 이 성명에서 북한은 남조선이 전쟁을 도발하지 않는다면 선제 무력 불사용과 동년 8월 31일까지 자신

18) 위의 글, p. 182.

19) “유엔총회의장과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보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박헌영 외무상 항의 성명,” 『로동신문』 (1950년 9월 29일); “미국비행기의 개성중립지구 폭격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남일장군의 성명,” 『로동신문』 (1951년 8월 31일); “세균전의 제 사실을 현지 조사할데 관한 유엔총회의 토의에 관련하여 박헌영 외무상 성명 발표,” 『로동신문』 (1952년 10월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 김일성 원수의 성명,” 『로동신문』 (1953년 4월 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남일 외무상 성명 발표-조선문제의 평화적 조정을 위한 제네바 회의 총회에 관하여,” 『로동신문』 (1954년 7월 7일).

2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성명,” 『로동신문』 (1955년 8월 12일).

들의 무력 중에서 8만 명을 감축하고, 군사비를 평화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충당하겠다고 선언하였다.²¹⁾ 이것은 전쟁이 재발되지 않는 한 전후 복구와 경제건설, 더 나아가 체제 안정화를 위해 인민군이라는 자산을 활용하겠다는 평화를 상징화한 한 국가 전략 공표의 의미가 있었다.²²⁾

최초의 외무성 대변인 성명은 1957년 11월 30일에 유엔 총회 제12차 회의에서 한반도 문제에 관한 결정을 자신들과의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제로 상정해서 논의한 것에 대한 항의 목적에서 발표되었다.²³⁾ 정부 차원 성명의 주요 내용은 ▲제국주의 침략 세력에 대한 비판, ▲식민지 민족해방투쟁에 대한 지지, ▲정전협정을 포함해 한반도를 둘러싼 국내외 환경 변화 등 주로 전쟁 후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대응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 시기까지 북한에서는 수상 성명, 정부 성명, 외무상 성명, 외무성 성명, 외무성 대변인 성명 등 총 5개의 외교 관련 정부의 공식 성명체가 존재했다. 이와는 별개로 사회주의 국가의 당 외교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성명이 아니라 당 차원에서 성명이 발표된 적도 있었다.²⁴⁾ 1956년 2월 소련공산당 제20차 대회에서 흐루시초프(Khrushchev)가 평화공존론(the theory of peaceful coexistence)과 전쟁가피론(the theory of avoidable war)을 주장한 이후 북한은 자주 노선을

21) “조선인민군 병력 축소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성명,” 『로동신문』 (1956년 6월 1일). ‘정부 성명’이 아니라 ‘정부의 성명’으로 표기되어 있다. 로동신문상 정부의 성명이라는 표기는 이것이 유일해 보인다.

22) “공화국 정부 성명에 의한 인민군 병력 축소 사업 시작,” 『로동신문』 (1956년 6월 25일).

2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성명-유엔총회 제12차 회의 전원회의에서,” 『로동신문』 (1957년 12월 1일).

24) “독일공산당 비법화와 관련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성명,” 『로동신문』 (1956년 9월 9일). 이것은 로동신문상에서 당 차원의 유일한 성명으로 보인다.

추구하기 시작했다. 미 제국주의와의 전쟁을 경험하고 군사적 위협에 시달리고 있던 북한에게 흐루시초프의 주장은 체제를 위협하는 매우 비현실적이고 위험한 사고였다.

중소분쟁이 격화됨에 따라 자주를 기치로 한 북한의 성명 외교는 이전과는 발표 횟수와 해당 이슈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면서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북한은 중소분쟁의 과정에서 자신들과 유사한 역사제도적 배경, 즉 식민지 경험, 혁명, 분단, 전쟁 등을 경험했던 국가들의 민족해방투쟁(national liberation struggle)에 지지, 성원하는 것을 중요한 외교 정책으로 추진하였다. 북한은 정부 차원의 성명을 활용하여 국가 이익을 수호하려는 노력을 더욱 경주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1961년 4월 미국의 피그만 침공(Bay of Pigs Invasion) 당시 사회주의 국가 최초로 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맹렬히 규탄한 바 있었다.²⁵⁾ 이러한 성명외교의 패턴은 1962년 10월 쿠바 미사일 위기(the Cuban Missile Crisis) 때 더욱 강화되었다.²⁶⁾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은 비록 정부 차원의 성명이라고 하더라도 개인 명의의 성명도 발표하였으나, 이 시기부터 현재와 같은 정부 성명, 외무성 성명, 외무성 대변인 성명 이 세 가지 형식과 틀만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1961년 9월 제4차 당 대회를 통해 이전 내부 정치적 반대파들을 제거하고 김일성과 항일무장투쟁 세력을 중심으로 당과 국가를 재편하였다. 또한 자주를 강조하며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들과 우호적 관계 발전을 대외정책의 정책기조로 설정하고 더 많은 나라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였다.²⁷⁾ 이러한 의

2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 『로동신문』(1961년 4월 20일).

26) Sangbum Kim, “North Korea’s Aid to Cuba during the Cuban Missile Crisis,” *Pacific Focus*, Vol. 37, No. 3 (December 2022), pp. 436–472.

27)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1961년 9월

미에서 북한은 당 대 당, 국가 대 국가 관계 외교를 위한 외교적 시스템을 정비하고 개인 명의를 아닌 공식적인 정부 차원의 성명을 본격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베트남전쟁기 북한의 성명외교의 전개

베트남의 식민지와 혁명의 역사는 조선(이후 북한)의 역사와 매우 유사했다. 외세의 통상교섭 요구와 선교사 박해 문제,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군국주의 지배의 경험, 동북아와 동남아에서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 건설로 대변되는 혁명, 디엔 비엔 푸(Battle of Dien Bien Phu)와 한국전쟁으로 설명되는 전쟁, 1954년 7월 제네바 협정으로 인한 분단의 경험이 바로 그것이다. 북한과 베트남은 ‘이해의 일치’에 기반을 두고 ‘완전한 공존(integral coexistence) 정책’을 추구하였다. 이것은 북한이 대베트남 성명외교에 매우 중요한 역사-제도적 배경이 되었다.²⁸⁾

1958년 1월 김일성의 하노이(Hanoi) 방문시 발표되었던 정부 간 공동성명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베트남 문제에 대한 북한 정부 차원의 첫 성명도 이 시기에 발표되었다. 이 시기 미국은 남베트남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1955년 미국은 자국에서 망명 중이던 응오 딘 디엠(Ngô Đình Diệm)을 사이공 정부의 대통령으로

11일), 『김일성 저작집 15』(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p. 307-308.

28) Harish C. Mehta, *People's Diplomacy of Vietnam: Soft Power in the Resistance War, 1965-1972* (Newcastle upon Tyne: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2019), p. 109. 베트남은 100년 가까운 프랑스 식민 지배하에 있다 가 태평양 전쟁 개시로 인해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일본의 식민지로 남아 있었다.

옹립한 후 막대한 군사적 지원을 통해 공산세력 및 반정부세력들을 철저히 탄압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1961년 4월 18일 남베트남에 대한 군사적 간섭과 민족해방투쟁을 탄압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조약기구(SEATO)를 활용하려는 미국을 비난하는 내용의 외무성 성명을 발표하였다.²⁹⁾ 이것은 중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호찌민(Ho Chi Minh)이 남북 베트남을 모두 장악할 가능성을 두려운 결과였다.

1954년 제네바 협정(Geneva Conventions)을 통해 강대국들의 이익을 위해 일시적인 분단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던 북베트남은 1960년 12월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의 결성을 지원하였으며, 이로 인해 남북 베트남 간 대립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를 전후해 북베트남도 유엔 차원에서 한반도 관련 논의에서 북한이 제외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북한에 대한 지지, 성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부 차원의 성명을 발표하기 시작했다.³⁰⁾

북한과 북베트남은 자신들과 같이 ‘사회주의 내 혁명하는 작은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미제로부터 경제, 군사적 압박으로 인해 체제를 위협당하고 있으며, 평화공존론과 중소분쟁의 장기화로 인한 동맹의 실패로 인해 가장 큰 정치, 경제, 외교, 군사적 피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³¹⁾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베트남전쟁이었다.

2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성명-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성명 발표: 남부 월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행위와 전쟁 준비 책동을 규탄하여,” 『로동신문』 (1961년 4월 19일).

30) “조선 통일문제는 조선 인민 자신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하며 미군은 남조선에서 물러가야 한다-월남 민주공화국 정부 우리 나라 정부의 비망록을 지지하여 성명 발표,” 『로동신문』 (1960년 11월 28일).

31) 김일성,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서 한 보고, 1966년 10월 5일),” 『김일성 저작집 2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p. 381-382.

베트남 참전군인 출신이면서 전 미 국무장관이었던 존 케리(John Forbes Kerry)는 1971년 4월 미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베트남전쟁에서의 경험을 700년 전에 있었던 칭기스칸(Genghis Khan)의 정벌에 비교했다. 베트남전쟁은 소위 ‘씩쓸이 전쟁’³²⁾이었다는 의미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과 베트남에게 제국주의를 상대로 한 민족해방투쟁은 자주라는 목표와 연대라는 수단을 통해 어떻게 자신들을 안전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생존 전략이었다. 북한은 정부 차원의 성명을 통해 자신들의 전략을 더욱 명확히 해가기 시작했다.

가. 개전, 확전기(1964-1967)

통킹만 사건은 북베트남과 미국이 전면전에 나서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은 프랑스 제국주의로 시작된 베트남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이 미국을 상대로 다시 본격화되었음을 의미했다. 북한은 베트남전쟁을 북한의 전쟁으로, 베트남의 전쟁 승리를 자신의 승리로 인식하며 ‘인도차이나의 북한’인 ‘북베트남’을 성명외교를 통해 적극 지원하였다.

통킹만 사건 직후인 8월 6일 북한은 정부 차원의 최고 성명인 정부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미국의 북베트남 침략행위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양국은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을 반대하고 싸우는 ‘한 가정의 형제’임을 강조하며, 모든 힘을 다해 베트남을 지원할 것임을 천명하였다.³³⁾ 특히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한 것은 남한의 베트남전 파병과 사회주의 약소국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에 대한 미국의 무차별적인 공중 폭격이었다.

32) 박태균, 『베트남전쟁-잊혀진 전쟁, 반쪽의 기억』 (서울: 한겨레출판, 2015), p. 174.

3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 『로동신문』 (1964년 8월 7일).

북한은 남한 정부가 1965년 1월 8일 2천여 명 병력의 남베트남 파병을 결정하자 즉시 반발하며 1월 9일 정부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성명에서 북한은 미국이 전쟁을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하려는 의도이며, 베트남 인민뿐만 아니라 남북한 국민 모두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전쟁 범죄’이자 ‘민족적 모독행위’로 규정하며 베트남의 투쟁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³⁴⁾

1965년 2월 미국은 북베트남에 대한 본격적인 공습을 시작하였으며, 3월에는 대규모 지상군을 사이공(Saigon)에 상륙시켰다. 미국은 군사고문단 파견이라는 간접적 지원의 역할에서 전면전을 통해 직접적인 전쟁 당사자로 나서게 되었다.³⁵⁾ 미국은 1965년 2월 7일과 8일 양일 동안 북베트남 지역에 대한 공중 폭격을 감행하였다. 북한은 2월 8일 북베트남 정부가 공중 폭격을 맹비난한 북베트남 정부 성명에 전적으로 지지하며, 그들과 전투적 연대성을 더욱 강화해 갈 것임을 천명하였다.³⁶⁾ 또한 북한은 1965년 3월 22일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이 남베트남을 해방하고 북베트남과의 통일을 이룩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자 이에 호응하여 3월 26일 정부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성명에서 북한은 “월남 인민에게 무기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다할데 대하여 결정하였다는 것을 공표”하며,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어느때나 지원군을 남부 월남에 파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³⁷⁾

3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 『로동신문』 (1965년 1월 10일).

35) 히가이 다이사쿠, 서각수 옮김, 『적과의 대화-1997년 하노이, 미국과 베트남의 3박 4일』 (서울: 원더박스, 2018), p. 126.

3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 『로동신문』 (1965년 2월 10일).

3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조선 인민은 형제적 월남 인민에게 무기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지원을 다할 것이며 요청이 있을 경우에 지원군을 파견하는

또한 7월 초 남베트남에 1개 사단을 증파하기로 결정한 박정희 정부의 결정에 반발하며 “끝내 남조선 괴뢰군을 대량적으로 남부 월남에 파견한다면 그것이 사단이던 군단이건 증파되는 그 병력 수에 해당하게 남부 월남 해방군과 인민무장대원들을 무장시키는데 필요한 무기와 장비들을 남부 월남 민족 해방 전선에 제공할 것”임을 재천명하였다.³⁸⁾ 이것은 북한이 남한의 베트남전 파병으로 인해 베트남전을 자신의 대리전쟁으로 인식하였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남한 사회의 군사화와 반공의 강화 현상에도 우려했음을 보여준다.³⁹⁾

북한은 1966년 12월 초 약 열흘 동안 지속된 미국의 하노이에 대한 폭격에 대해 “사회주의 진영의 모든 나라들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며 전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을 반대하는 극악한 범죄행위”라며 맹렬히 비난하였다.⁴⁰⁾ 북한이 미국의 하노이 폭격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던 이유는 사회주의 국가의 수도는 해당국 혁명의 심장이며, 수도를 공중 폭격한다는 것은 사회주의 혁명을 무력으로 저지하고 전면전을 통해 무력으로 압살하려 한다는 김일성의 신념체계 때문이었다.⁴¹⁾

북한은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평양 폭격에 대한 트라우마(trauma)로 인해 혁명의 상징인 수도 하노이가 미군에 폭격

조치를 취할 것이다.” 『로동신문』 (1965년 3월 27일).

3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미제와 박정희 도당이 증파하는 남조선 괴뢰군의 병력수에 해당하게 남부 월남해방군과 인민무장대원들을 무장시키는데 필요한 무기와 장비들을 남부 월남 민족 해방 전선에 제공할 것이다.” 『로동신문』 (1965년 7월 9일).

39) 도미엔, 『붉은 혈맹: 평양, 하노이, 그리고 베트남전쟁』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p. 137.

4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하노이에 대한 폭격은 사회주의 진영에 대한 도전 미제는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 『로동신문』 (1966년 12월 16일).

41) “사설-미제침략자들에게 죽음을 주라.” 『로동신문』 (1966년 12월 16일).

당하는 것을 주권 유린으로 인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1954년 제네바 협정에서 설정된 북위 17도선 비무장지대에 대한 미국의 군사작전을 맹비난하는 1967년 5월 21일 북베트남 정부 성명 및 22일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성명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베트남전쟁에서 미국의 전쟁정책과 군사력 전개 양상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지원 형태를 취할 것임을 천명하였다.⁴²⁾ 이것은 북한이 베트남전쟁을 인도차이나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2의 한국전쟁’으로 인식하였으며, 베트남전쟁에서 베트남이 승리한다면 미국의 국력을 급속히 쇠퇴시켜 한반도에서 자신들 위주의 한반도 통일을 이룩하는데 매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베트남전쟁을 미제의 각 뜨기 전략으로 대표되는 식민지 신생 독립국가들의 자주와 해방을 위한 민족해방투쟁 지원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회로 활용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베트남전쟁 개전, 확전기 (1964-1967)에 발표된 북한 정부 차원의 성명은 분석 대상인 113개의 성명 중 정부 성명 12회(총 29회/41.4%), 외무성 성명 20회(총 46회/43.5), 외무성 대변인 성명 6회(38회/15.8%), 총 38회(총 113개/33.6%)가 발표되었다.⁴³⁾ 연도별로 보면 1964년 1회(정부 성명 1회), 1965년 9회(정부 성명 6회, 외무성 성명 2회, 외무성 대변인 성명 1회), 1966년 14회(정부 성명 1회, 외무성 성명 9회, 외무성 대변인 성명 4회), 1967년 14회(정부 성명 4회, 외무성 성명 9회, 외무

4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미제가 월남에서 <<전면전쟁>>의 길에 들어선다면 조선인민은 그에 상응한 지원형태를 취할 것이다,” 『로동신문』 (1967년 5월 26일).

43) 세부적인 발표 연도, 회수, 연도는 <표 1>, <표 2>, <표 5>를 참고.

성 대변인 성명 1회)가 각각 발표되었다.

북한은 베트남전쟁 개전, 확전기에 정부 성명을 통해 자신들의 정세 인식 및 평가, 대응 방향을 명확히 밝혔다. 북한은 미국의 베트남 침략, 남한의 베트남군 파병 시도, 친북베트남 정부인 캄보디아(Cambodia)의 시하누크 정부(Norodom Sihanouk)에 대한 무력 공격을 맹렬히 비난하면서 북베트남에 대한 경제·군사적 지원과 강화를 천명하였다. 당시 중국과 소련은 미국과의 직접적인 대결을 피하기 위해 주로 당 기관지의 사설, 논설 등을 활용하며 다소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이것은 중국, 소련과 확연히 다른 상징과 전략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중소와는 달리 북베트남 정부와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이 최고 수위인 정부 성명을 발표하였을 때 그들과의 자주를 존중하고 연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같은 수위인 정부 성명을 발표하였다. 정부 성명에서 북한은 북베트남이 ‘당당한 사회주의 자주적인 주권국’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이것은 북한이 동일한 역사·제도적 배경을 가진 북베트남의 입장에서 베트남전쟁을 바라보고 대응하고 있다는 의미가 있었다.

북한 정부 성명의 대상에는 베트남전쟁기를 통틀어 베트남 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주요 무기 공급처이며, 호찌민 루트(Ho Chi Minh Trail)가 연결되어 베트남의 후방의 역할을 했던 캄보디아와 라오스(Laos)에 대한 지지까지 포함되었다. 그 이유는 북베트남의 사회주의 지도자들은 인도차이나 전체를 하나의 전장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북한도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⁴⁴⁾ 이것은 1920년 호찌민을 중

44) Ang Cheng Guan, “The Vietnam War, 1962–64: The Vietnamese Communist Perspective,” *Journal of Contemporary History*, Vol. 35, No. 4 (October 2000), p. 613.

심으로 한 인도차이나 공산당이 설립된 이후 이들 국가들 내 반군을 조직해 친미 국가들과 전쟁을 벌여왔던 투쟁사에 기인한 것이었다. 북한이 정부 성명에 캄보디아와 라오스에 대한 지지까지 포함한 것은 북한과 북베트남 간 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시기 북한이 발표한 정부 성명 리스트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베트남전쟁 개전, 확전기 발표한 정부 성명 리스트(1964-1967)

차수	발표일 45)	주요 내용
1	1964. 08.06	미국의 북베트남 침략 행위 비난
2	1965. 01.09	남한의 베트남 파병 비난
3	1965. 02.09	미국의 북베트남 지역에 대한 공중 폭격을 비난
4	1965. 03.05	북베트남 주에 대한 공격 폭격 비난
5	1965. 03.26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 성명 지지하여 경제적, 군사적 지원 결정 통보
6	1965. 07.08	남한이 베트남에 파병한 군대 규모에 비례해 북한도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에 무기와 장비들을 지원할 것을 천명
7	1965. 08.07	북베트남에 모든 형태의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강화할 것을 천명
8	1966. 12.15	미국의 베트남 하노이의 공중 폭격에 대한 비난
9	1967. 01.07	캄보디아에 대한 미국의 무력 침공을 비난
10	1967. 05.25	미국의 베트남전 확대 시도에 그에 맞는 지원을 하겠다는 북한의 의지 표명
11	1967. 09.07	미국의 캄보디아 무력 침공 시도 비난
12	1967. 12.29	캄보디아의 반미투쟁 지원 천명

*출처: 로동신문 1964년 8월 6일-1967년 12월 31일 참고해 저자 작성.

외무성 성명 및 외무성 대변인 성명도 베트남 정부 차원의 성명의 수위에 맞춰 발표되었다. 외무성 성명과 외무성 대변인 성명에서 주로 다뤄진 사안도 ▲북베트남(캄보디아, 라오스 포함)에 대한 미군의 군사적 공격에 대한 비난과 규탄, ▲북베트남과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의 민족해방투쟁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북베트남에서의 전쟁 행위 중단 및 미군 철수, ▲박정희 정부의 파병 및 추가 파병 시도 비난 등이었다. 이 시기 북한이 발표한 외무성 성명, 외무성 대변인 성명 횟수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베트남전쟁 개전, 확전기 발표한 북한 정부, 외무성, 외무성 대변인 성명횟수

연도	정부 성명	외무성 성명	외무성 대변인 성명	총수
1964	1	0	0	1
1965	6	2	1	9
1966	1	9	4	14
1967	4	9	1	15

*출처: 로동신문 1964년 8월 6일-1967년 12월 31일 참고해 저자 작성.

외무성 성명은 정부 성명 보다 ‘급’과 ‘수위’ 면에서 낮았으나 대변인 성명보다는 높았다. 외무성 성명 및 외무성 대변인 성명은 주로 전략적 차원에서 발표되는 정부 성명을 지지하는 의미가 강했으며, 국가적으로 중요하지만 ‘급’과 ‘내용’ 면에서 정부 성명 차원에서 다루기 부차적인 외교적 사안들을 주로 다루었다. 또한 정부 성명에서 이미 다뤄진 사안이지만 사안의 지속과 장기화로 인해 지지를 이어가는 차원에서 발표하기도 했다.

45) 정부 성명 실제 발표일과 로동신문상 공개 날짜와는 일반적으로 1-3일 간 차이가 있다. 발표 당일 로동신문상 공개하는 것은 극히 드물다. 성명을 발표 당일 로동신문에 공개하는 것은 그만큼의 긴박함과 심각성을 반영한다는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정부 성명이 베트남전쟁에서 북베트남과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에 대한 경제·군사적 지원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지원을 천명하였을 때, 외무성 성명은 북베트남, 남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에서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고 있는 미국의 군사적 행위에 대한 외교적 비난과 규탄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당시 남북 베트남 인민들의 전쟁 수행 노력을 소개하고 자신들 또한 모든 노력을 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기회로 활용하였다.⁴⁶⁾ 외무성 대변인 성명에서는 미국의 군사적 행위를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에 집중하였다.⁴⁷⁾

정부 성명과 외무성 성명, 외무성 대변인 성명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부 성명이 전략적 차원에서 북한 지도부의 정세 인식 및 신념에 바탕으로 한 대응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므로 다른 성명들보다 ‘이행’ 즉 실행, 집행의 의미가 더 컸다는 사실이었다. 또한 정부 성명은 북한 인민들에게 정부의 노선과 정책을 설명함으로써 베트남 지원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역으로 정부 성명은 북베트남에게도 자주와 민족해방투쟁을 위해 내부 동원을 합리화하고 자신들의 전쟁 정책에 대한 대내외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북베트남과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은 북한, 쿠바 등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의 지원병 파병을 포함한 물질적, 정신적 지원 의사를 국내적 차원에서 자원병을 모집하기 위한 합리성의 기

4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성명-남부 월남에서의 침략 전쟁을 인도지나 전역에 확대하려는 미제의 책동을 견결히 규탄한다,” 『로동신문』 (1965년 2월 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성명-남부 월남 해방군과 인민들을 지원하는데 조선 인민은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다,” 『로동신문』 (1965년 11월 25일).

4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성명-남부 월남에 대한 침략전쟁을 더욱 야수적 방법으로 감행하고 있는 미제국주자들의 범죄행위를 규탄,” 『로동신문』 (1965년 10월 7일).

제로 활용하였다. 북베트남과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은 ▲북한의 통일방안 지지, ▲박정희 정부의 추가 파병을 반대하기 위한 남한 국민들 선동, ▲유엔에서의 북한을 제외한 한반도 논의에 대한 비판, ▲미군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공동 인식, ▲김일성의 전쟁 지원 정책 및 민족해방투쟁 노선에 대한 지지 등을 통해 대내외 사안에 대해 북한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였다. 즉, 성명외교는 북한과 북베트남,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 모두의 자주와 민족해방투쟁에 대한 정당성 확보를 위한 고도의 외교적 행위였다.

북한이 발표한 정부 차원의 성명 발표의 회수는 베트남전쟁의 전개 양상과 북한의 대응 수위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중의 하나인 정부 성명은 1965년과 1972년 각각 6차례로 가장 많이 발표되었는데, 이는 미국의 북베트남 폭격 시작과 파리평화협상의 결렬로 인한 재확전 때문이었다. 1966년에는 정부 성명의 횟수가 1회로 그치고 외무성 성명 및 외무성 대변인 성명은 전년 대비 각각 9회와 4회로 급증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첫째, 1965년 12월-1966년 1월까지 존슨 대통령의 공습 중지 및 1966년 여름부터 12월까지 폴란드의 중재로 미국과 북베트남 간 최초의 협상이었던 ‘마리골드 협상(Marigold)’의 진행으로 인해 베트남전쟁은 소강 국면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정부 성명은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⁴⁸⁾ 여기에 한반도에서는 1966년부터 한국전쟁과 같은 전운이 감돌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비무장지대 내 남북 간 군사충돌도 북한이 한반도 정세에 주목하며 정부 성명

48) 히가이 다이사쿠, 서각수 옮김, 앞의 책, pp. 159-164. 이 협상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James G. Hershberg, *Marigold: The Lost Chance for Peace in Vietnam* (Stanford/Washington D.C.: The Stanford University Press/Woodrow Wilson Center, 2012)을 참고.

발표 수를 급격히 줄이게 된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⁴⁹⁾ 당시 남북 간 군사충돌의 급증은 북한이 남한 및 주한미군의 베트남전쟁으로의 추가 파병을 저지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⁵⁰⁾

둘째, 북한은 외무성 성명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전술적 차원에서 ▲남베트남에서의 미군 철수, ▲베트남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남북 베트남 인민에 대한 도덕적 지지, ▲캄보디아와 라오스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행위 중단 요구, ▲박정희 정부의 추가 파병 반대 등을 발표했기 때문이었다. 1967년에는 다시 정부 성명이 전년 대비 4회, 외무성 성명은 전년과 동일한 수가 발표된 것은 마리골드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고 미국의 북베트남 군사적 공격이 재개되어 전쟁이 더욱 격화되었기 때문이었다.

이 시기 북한은 성명외교를 통해 선언한 바와 같이 베트남을 총력전 형태로 지원하였다. 정치적으로는 1964년 11월 김일성은 비밀리에 하노이를 방문해 호찌민 등 베트남 지도부와 회동하고 양국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논의하였다.⁵¹⁾ 또한 북한은 1965년 5월 응우옌 반 해우((Nguyen Van Hau)를 단장으로 하는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 대표단을 평양으로 초청해 대베트남 경제·군사적 지원을 결정한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4차 회의를 개최하였다.⁵²⁾ 놀라운 사실은 이 회의가 응우옌 반 해우는 김일성의

49) 당시 남북간 군사충돌에 대해서는 김용현 엮음, 『남북한 군사충돌로 본 분단 70년사』(서울: 도서출판 선인, 2018), pp. 331-332를 참고.

50) 한국학술정보 엮음, “THE PRESIDENT’S DAILY BRIEF_17_August_1967,” 『CIA 기밀해제 총서(CIA’s Declassified Documents) 30: 존슨 대통령 일일 보고서, 1967_07-09』(파주: 한국학술정보, 2017), p. 228.

51) 조진구, “중소대립, 베트남전쟁과 북한의 남조선혁명론, 1964-68,” 『아세아연구』, 제46권 4호 (2003), p. 234.

52)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4차 회의 개막-제1일 회의에서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는 월남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원할 데 대하여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

옆 자리에, 나머지 대표단은 주석단에 초대된 상황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이였다. 베트남을 지원하는 것을 주제로 한 회의에 그들이 주체적으로 참석케 하는 형태를 위한 이러한 외교적 배려는 북한의 외교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것이였다. 이는 그들을 남베트남 인민의 유일한 대표와 사실상 국가로 예우했음을 의미했다.

외교적으로는 1966년 1월 북한은 쿠바, 베트남과 주축이 된 아시아·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 인민단결회의(OSPAAAL)를 하바나(Havana)에서 개최하였다. 3대륙 국가들의 유엔이라고 불리웠던 이 회의는 이 지역의 민족해방투쟁을 기존 사회주의 혁명과 함께 ‘동등한 수준의 혁명 역량’으로 명문화하였다.⁵³⁾ 이 회의에서 북한과 베트남은 쿠바와 함께 중소로 하여금 베트남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당시 약소국 사회주의 국가들의 민족해방투쟁이 세계혁명에서 가지는 혁명적 가치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이 회의에서는 베트남과의 연대성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베트남과의 연대성 주간’을 설정해 각국 당과 정부가 베트남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명분과 근거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⁵⁴⁾

경제·군사적으로 북베트남과 북한은 1966년 9월 24일부터 30일까지의 반 티엔 둥(Van Tien Dung) 참모총장과 최광 총참

하였으며 월남 민주공화국 인민회의와 남부 월남 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에 보내는 편지를 각각 채택,” 『로동신문』 (1965년 5월 21일).

53) Castro, “Discurso pronunciado en el acto clausura de la Primera Conferencia de Solidaridad de los Pueblos de Asia, África y América Latina (Tricontinental), en el Teatro Chaplin, La Habana, el 15 de enero de 1966. (Español),” <http://www.cuba.cu/gobierno/discursos/1966/esp/f150166e.html> (검색일: 2019. 7. 20).

54) “제국주의, 식민주의, 신식민주의를 반대하여 싸우는 것은 3대륙 인민들의 선차적인 과업이다-3대륙회의에서 채택된 총선언,” 『로동신문』 (1966년 1월 20일).

모장 간 합의⁵⁵⁾에 의해서 1966년 9월 30일 파병 관련 협정을 체결하고,⁵⁶⁾ 1966년 11월 공군 1차 부대, 12월 2차 부대, 1967년 초 3차 부대를 파견하였다.⁵⁷⁾ 또한 1964년부터 1967년까지 경제·기술 원조 및 무상원조(군사 포함)를 체결하였으며, 해마다 그 규모를 크게 확대하였다.⁵⁸⁾ 1965년부터 1967년까지 제공된 무상지원액은 24.3백만 루블이었으며, 이 금액은 북한이 1965년부터 1972년까지 베트남에 제공한 총 무상지원액 40.7백만 루블의 약 60%를 차지할 정도였다.⁵⁹⁾ 베트남전쟁을 소재로 한 북한의 소설 ‘운명’에서는 통킹만 사건 이후 1966년 6월 당시까지 북베트남에 제공한 무기와 탄약, 군수물자를 합쳐 북한 돈으로 대략 1억 7천 500만 원에 달한다고 소개하고 있다.⁶⁰⁾ 이러한 사실은 북한이 베트남전쟁에서 국력을 총동원해 베트남을 보위하려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한의 성명외교에 기초한 다방면에서의 지원에 대해 베트남은 “양국 인민들 간의 굳은 단결의 표시”라며 “가장 뜨겁고 심심한 사의”를 표명하였다.⁶¹⁾ 이렇게 북한은 베트남전쟁 개전,

55) 본 연구에서 북한과 북베트남 간 ‘합의’라고 명기한 이유는 북베트남과 북한의 자료 모두 상대국이 먼저 참전을 제안해왔다고 주장해서 정확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어느 쪽이 먼저 제안을 했는지 보다 수용과 참전의 결정은 북한과 북베트남의 고유한 ‘자주의 영역’이었다는 것이다.

56) Merle Pribbenow, “North Korean Pilots in the Skies over Vietnam,” (November 2011), p. 3. <https://www.wilsoncenter.org/publication/north-korean-pilots-the-skies-over-vietnam> (검색일: 2014. 3. 5).

57) 이신재, 『북한의 베트남전쟁 참전』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p. 94. 북한 공군의 베트남 참전 결정과정과 재구성에 대해서는 이신재의 연구를 참고.

58) 위의 책, p. 221.

59) Vietnam National Archive III, Governmental Office Fond, Document No. 9235, Index No. 3. 여기서는 도미엔, “1975년 베트남전 종전과 북한정부의 대응: 베트남 자료를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 제48권 (이화사학연구소, 2014), p. 100에서 재인용.

60) 정기중, 『총서 <<불멸의 력사>> 장편소설 운명』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2), p. 272.

확전기에 베트남에 대한 총력전 형태의 지원을 통해 성명외교의 정당성을 확보해 나갔다.

나. 협상 및 재확전기(1968-1972)

1968년부터 1972년까지 베트남과 미국은 파리평화협상의 진행 및 전쟁 재확전을 거듭해 갔다. 1968년 1월 구정 대공세(Tet Offensive)는 사이공 내 미국 대사관이 점령당하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줌으로써 사실상 베트남전쟁의 운명을 결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은 베트남전쟁을 반대했던 프랑스 드골(Charles de Gaulle)의 중재를 받아들여 1968년 5월부터 베트남과 파리평화협상을 시작하였으며, 동년 11월 1일을 기해 북베트남에 대한 폭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였다. 협상이 지지부진하던 과정에서 미국은 1969년부터 캄보디아, 라오스를 군사적으로 공격함으로써 베트남전쟁은 재확전 되었다. 베트남은 미국의 폭격 중지와 파리평화협상 과정에서 전후 복구를 위해 체제 역량을 총동원하였다.

베트남전쟁 협상, 재확전기(1968-1972)에 발표된 북한 정부 차원의 성명은 분석 대상인 113개의 성명 중 정부 성명 17회(총 29회/58.6%), 외무성 성명 26회(총 46회/56.5), 외무성 대변인 성명 32회(38회/84.2%), 총 75개(총 113개/66.3%)의 성명이 발표되었다.⁶²⁾ 연도별로 보면 1968년 12회(정부 성명 4회, 외무성 성명 7회, 외무성 대변인 성명 1회), 1969년 14회(정부 성

61) “우리 나라 각계 인민이 월남 인민의 반미 구국투쟁을 지지 성원하며 지원군에 참가하여 월남 형제들과 함께 싸울 결의를 표시한 데 대하여 우리 나라 주재 월남 민주공화국 대사관에서 사의를 표시,” 『로동신문』 (1965년 4월 23일).

62) 세부적인 발표 연도, 횟수, 연도는 <표 3>, <표 4>, <표 5>를 참고. “,” 『년 월 일』.

명 1회, 외무성 성명 8회, 외무성 대변인 성명 5회), 1970년 13회(정부 성명 4회, 외무성 성명 5회, 외무성 대변인 성명 4회), 1971년 12회(정부 성명 2회, 외무성 성명 3회, 외무성 대변인 성명 7회), 1972년 24회(정부 성명 6회, 외무성 성명 3회, 외무성 대변인 성명 15회)가 각각 발표되었다.

〈표 3〉 베트남전쟁 협상, 재확전기 발표한 정부 성명 리스트(1968-1972)

차수	발표 시기	주요 내용
1	1968.02.28	남베트남 주요도시에 대한 미군의 공습을 비난, 베트남전쟁에 대한 지원 강화
2	1968.07.10	캄보디아의 대미 항전 지지
3	1968.11.03	11월 2일부 북베트남 정부성명과 3일 호찌민의 호소문 지지
4	1968.11.05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이 표명한 베트남 문제 해결의 입장을 지지
5	1969.06.11	남베트남의 임시혁명정부 수립을 축하
6	1970.04.29	인도차이나 반도의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간 3각 정상회담과 그 공동선언에 대한 지지 표명
7	1970.05.05	캄보디아 반미투쟁을 적극 지지
8	1970.10.11	미국과 캄보디아 롤 놀 수상이 공화국을 선포한 것에 대한 비난
9	1970.12.13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인민들과 함께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미제를 격퇴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밝힌 북베트남 정부를 지지
10	1971.01.22	캄보디아에 대한 미국의 전쟁 확대 움직임 비난

11	1971.02.15	라오스의 반미투쟁을 지지
12	1972.02.05	닉슨의 8개 항목 제안을 반대한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 입장 지지
13	1972.04.18	미국의 하노이 및 하이퐁 지대 폭격 강화 비난
14	1972.05.11	미국의 베트남전 확대 움직임 비난
15	1972.09.16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의 성명을 지지
16	1972.10.29	캄보디아 민족통일전선과 민족연합정부만을 인정하며, 노로돔 시하누크를 지지
17	1972.10.29	베트남 전 종식을 위한 북베트남 정부의 평화적 협상을 지지

* 출처: 로동신문 1968년 1월 1일-1972년 12월 31일 참고해 저자 작성.

이 시기의 정부 성명의 주요 내용은 ▲파리평화협상에 대한 북베트남 입장에 대한 지지,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 수립에 대한 지지, ▲재확전 반대와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캄보디아-라오스 3각 반미연합전선 움직임에 대한 지지,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반미투쟁 지지, ▲미국의 베트남전쟁 재확전에 대한 비난과 베트남에 대한 지원 강조 등이었다. 이것은 이 시기 북한 성명외교의 기조도 이전 ‘전쟁 수행을 위한 지원’에서 이후 ‘전후 베트남 건설을 위한 지원과 반제아시아연합전선의 형성’으로 방향이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과 남베트남민족민주평화역량동맹은 1969년 6월 6일부터 8일까지 남베트남 내 해방지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수립을 선포하였다.⁶³⁾ 북한은

63) “남부월남인민들이 남부월남공화국 임시혁명정부를 수립, 정부의 자문리사회를 설치-해방지역에서 광범한 각계각층 대표들의 참가하에 남부월남국민대표자회 진행, 대회준비위원회를 대표하여 남부월남해방전선 원우수위원장이 정치보고,” 『로동신문』 (1969년 6월 12일).

세계 최초로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를 남베트남 인민들의 진정한 합법적 대표로 인정하였으며,⁶⁴⁾ 6월 11일 정부 성명을 통해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와 외교관계를 맺을 것임을 선언하였다.⁶⁵⁾ 북한과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는 6월 12일 평양에서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하고 기존 주북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 대표를 주북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 대사로 지위를 전환시켰다.⁶⁶⁾ 이것은 베트남전쟁이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의 승리로 귀결될 것이라는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

북한이 이 시기 정부 성명을 통해 목표한 것은 민족해방투쟁을 기본으로 하는 ‘반제아시아연합전선’의 형성 및 강화였다. 북한의 남한과 마찬가지로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도 각각 사이공 정부(Saigon Government)-론놀(Lon Nol Government) 정부-비엔티엔 정부(Vientian Government)로 이어지는 친미정권들이 수립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확전이 되자 북한은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 인도지나 3개국 공동 지원을 선언하였다. 1970년 4월 24일과 25일 동안 캄보디아 시하누크 국왕의 제안에 의해 열린 인도차이나 3개국 정상회담(캄보디아, 라오스,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에서는 재확전에 대한 공동 무력 대응을 핵심으로 한 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북한은 동년 4월 29일 정부 성명을 통해 이 공동선언에 대해 “인도지나 인민들의 반미공동투쟁을 새로운 단계어로 강화발전시킴에 크게 이바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4월 25일 부 공동선언을 전적으로 지지하였

64) “김일성수상께서 남부월남공화국 임시혁명정부 주석에게 축전을 보내시었다,” 『로동신문』 (1969년 6월 13일).

6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은 남부월남공화국 임시혁명정부의 수립을 가장 열렬히 축하한다,” 『로동신문』 (1969년 6월 13일).

6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남부월남공화국 임시혁명정부 사이에 대사급 외교관계를 설정,” 『로동신문』 (1969년 6월 13일).

다.⁶⁷⁾ 미국이 캄보디아와 라오스를 무력으로 침공하며 베트남전쟁의 재확전을 강화해 나갈 때 북한은 정부 성명을 통해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캄보디아-라오스 3각 정상회담과 연대 강화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이것은 이 시기 발표된 정부 성명 총 17개의 성명 중에서 8개가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캄보디아-라오스 간 반미연합전선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베트남전쟁으로 인해 아시아가 가장 치열한 반제 전선이며, 아시아반제혁명 투쟁은 한국전쟁에서 자신들의 투쟁과 승리의 결과라는 김일성의 사고때문이었다.⁶⁸⁾ 김일성은 시하누크 정부-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북베트남 정부-수파누봉 정부-중국 정부-북한으로 이어지는 소위 ‘반제아시아연합전선’을 형성해 남베트남-대만-남한-일본으로 이어지는 소위 ‘친미아시아연합전선’에 대응하며 한반도 안보 문제의 대응기제로 활용하길 원했다. 이것은 북한이 이 연합전선에 대해 자신들의 ‘전략적 노력의 결과’이자 ‘매우 중요한 혁명의 전취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⁶⁹⁾

6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조선인민은 인도지나인민들의 정의의 위업을 모든 힘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지지성원할 것이다,” 『로동신문』 (1970년 4월 29일).

68) “아세아는 가장 치열한 반제전선이며 반제혁명투쟁의 기본무대이다,” 『로동신문』 (1971년 5월 10일); “아세아반제혁명위업의 중국적 승리를 담보하는 위대한 전략적 방침,” 『로동신문』 (1972년 6월 26일).

69) “조선, 캄보쟈를 비롯한 아세아의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은 공동전선을 펴고 미제에 집단적으로 타격을 가하자!-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은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캄보쟈 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에 대하여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계속 모든 것을 다하여 적극 지원할 것이다-평양시군중대회에서 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최용건 위원장의 연설,” 『로동신문』 (1970년 6월 19일); “두 나라 인민들의 친선단결은 새로운 기초우에서 강화되고 있다-연회에서 한 김일성수상의 연설,” 『로동신문』 (1970년 6월 28일).

이 시기 외무성 성명 및 외무성 대변인 성명도 상술한 맥락에서 전술적 차원에서 발표되었다. 당시 성명들의 주요 내용은 ▲미국의 베트남전쟁 확대 책동 경고, 반대, ▲미국의 캄보디아와 라오스 침공에 대한 비난, 반대,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미군 철수, ▲북베트남 및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에 대한 지원 강화였다. 또한 이들 성명들은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 캄보디아, 라오스 외무성과 외무성 대변인 차원의 성명 및 통일전선에 대한 지지, ▲캄보디아의 문화유산인 앙코르 와트에 대한 미국의 파괴 행위 등 해당 정부와 관련 기관에 대한 지지나 미국의 파괴적 행위에 대한 도덕적 비난 등을 위해서도 활용되었다.

이 시기 정부 성명뿐만 아니라 외무성 성명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은 1968년에 총 8개에서 1969년 13개, 1970년 9개, 1971년 10개, 1972년 18개로 베트남전쟁 개전, 확전기에 비해 횟수가 대폭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양적인 변화는 베트남전쟁의 양상과 그에 대한 북한의 대응과 관련이 있었다. 이 시기 북베트남과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 사이공과 미국 정부는 파리 평화회담을 진행시키고 있었으며, 결렬 후 미국은 북베트남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라오스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북한은 베트남전쟁에 대한 북베트남과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에 대한 공고한 지지를 기반으로 라오스와 캄보디아에 대한 미국의 공격에 대해 외무성 및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맹렬히 비난하였다. 미국이 이들 국가들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강화해 나감에 따라 이에 대응한 북한의 외무성 및 외무성 대변인 성명은 증가할 수 밖에 없었다.

1969년 정부 성명은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에 대한 지지를 내용으로 1회만 발표되었는데 그것은 파리평화협상의 전개 및 그에 대한 북한의 부정적 인식 때문이었다. 북한은 겉으로는 파리평화협상의 개시를 베트남의 승리라고 선전했으나, 베트남과 미국 간 파리평화협상을 베트남전쟁의 활용이라는 자국의 전략적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반대하였다.⁷⁰⁾ 그 이유는 베트남의 대미평화협상이 기존 베트남의 인식, 즉 평화협상을 단호히 거부하고 끝까지 항전하겠다는 입장과 분명 대치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⁷¹⁾ 이러한 사실은 본 연구 관련 시기에 베트남 평화협상에 대한 지지가 전체 정부 성명 중 1건, 그것도 사실상 북베트남에 유리하게 협상이 종료될 조짐이 보였을 때 발표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상술하였듯이 정부 성명은 1965년에 이어 1972년에도 여섯 차례 발표되었다. 동시에 외무성 대변인 성명도 전년 대비 100%이상 급증하였다. 그 배경에는 파리평화협상의 지지 부진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미국의 캄보디아와 라오스에 대한 군사적 침공, 이에 대응한 반제아시아연합전선을 형성, 발전 시키려는 북한의 의도가 있었다. 북한은 이들 국가들에게 제국주의와의 협상이 가지는 기만성에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아시아에서 민족해방투쟁을 더욱 강화해 가기 위해 노력하였다.

70) Balázs Szalontai, "In the Shadow of Vietnam: A New Look at North Korea's Militant Strategy, 1962-1970," *Journal of Cold War Studies*, Vol. 14, No. 4 (Fall 2012), p. 152.

71) "미제가 침략전쟁을 계속하는 한 월남 인민은 끝까지 단호하게 항전을 진행할 것이다-월남 외교부 대변인이 미제의 기만적 <<평화노력>>을 규탄하여 성명," 『로동신문』 (1966년 1월 6일).

〈표 4〉 베트남전쟁의 협상 및 재확전기 발표한 정부, 외무성, 외무성 대변인 성명 수

연도	정부 성명	외무성 성명	외무성 대변인 성명	총수
1968	4	7	1	12
1969	1	8	5	14
1970	4	5	4	13
1971	2	3	7	12
1972	6	3	15	24

* 출처: 로동신문 1968년 1월 1일-1972년 12월 31일 참고해 저자 작성.

흥미로운 점은 이 시기 북한 정부 차원의 성명은 베트남전쟁과 반제아시아연합전선과 관련해 특정 사건의 추이와 중요도에 따라 하루에도 2-3회씩 발표되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북한은 1972년 10월 29일 베트남전쟁과 반제아시아연합전선과 관련해 하루에 2번의 정부 성명을 발표하였다. 또한 유사한 주제로 1968년 12월 11일에는 외무성 성명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1971년 1월 22일에는 정부 성명과 외무성 성명을 동시에 발표하였으며, 1971년 12월 25일에는 외무성 성명(2회)과 민족보위상 성명(1회) 총 3회를 발표한 적도 있었다. 이것은 북한 외교사에서 유일무이한 사례로 남아 있다. 베트남전쟁기 북한의 성명외교의 경험은 국가 안보와 전략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그들이 국가 이익과 목표달성을 위해 성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외교적 경험과 자산을 축적하는데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 5〉 베트남전쟁기 발표한 북한 정부, 외무성, 외무성 대변인 성명 횟수 및 비율

년도	정부 성명	외무성 성명	외무성 대변인 성명	총수/비율
1964	1	0	0	1/0.88
1965	6	2	1	9/7.96
1966	1	9	4	14/12.38
1967	4	9	1	14/12.38
1968	4	7	1	12/10.61
1969	1	8	5	14/12.38
1970	4	5	4	13/11.5
1971	2	3	7	12/10.61
1972	6	3	15	24/21.23
총합/비율	29/25.66	46/40.7	38/33.62	113

* 출처: 〈표 1〉, 〈표 2〉, 〈표 3〉, 〈표 4〉를 종합해 저자 작성.

북한은 반제아시아연합전선의 구축을 위해 캄보디아의 시하누크 왕국민족연합정부를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론놀-시리크 마타크(Sirik Matak)의 쿠데타에 반대하였다. 북한은 정부 차원의 성명에서도 반제아시아연합전선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실제로 주캄보디아 북한대사 김은환과 대사관 전체 직원들을 평양으로 철수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⁷²⁾ 더 나아가 북한은 1972년 3월 캄보디아에 군사적 원

72) “캄보자에 가 있던 우리 나라 대사관 성원들이 미제와 그 주구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성과적으로 철수하여 조국으로 돌아온다,” 『로동신문』, 1970년 5월 27일; “캄보자에 가 있던 우리 나라 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미제와 그 주구 프놈 뎀 반동당국의 교활한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조국으로 돌아왔다,” 『로동신문』 (1970년 5월 29일).

조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정을 체결하였다.⁷³⁾ 또한 베트남전쟁에서 베트남의 승리가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공격을 받고 있는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승리라는 명분으로 베트남에게 민족해방투쟁에 기초한 강력한 대미항전을 펼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북한은 1966년 1월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인민단결회의 이후 매년 3월 12일이 포함된 주를 베트남 지지 주간으로 설정하고 기념하여 왔으나 1972년부터는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 인민의 반미구국투쟁지지 주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반제연합형성 강화,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였다.⁷⁴⁾

이 시기 북한은 베트남의 파리평화협상 및 전후 복구 건설 전략에 기반해 중장기적 차원에서 경제·군사적 지원을 이어나갔다. 북한은 베트남과 1968년-1971년까지 경제·군사 무상 원조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근거해 북한 군 주둔 연장 및 새로운 정규군의 신규·추가 파병, 북한에서 베트남 군사지도자들의 교육, 군사전문가 파견 등이 진행되었다.⁷⁵⁾

1968년부터 1972년까지 북한이 베트남에 제공한 무상 지원 금액은 총 16.4백만 루블이었으며, 이것은 북한이 1965년부터 1972년까지 베트남에 제공한 총 무상지원액 40.7백만 루블의 약 40%를 차지하였다.⁷⁶⁾ 이 숫자는 1965년 개전 초기 한 해에만 12백만 루블을 지원했던 것과는 사뭇 차이가

7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캄보디아왕국 민족연합정부에 군사원조를 준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민족연합정부 사이의 협정이 조인되었다,” 『로동신문』 (1972년 3월 17일). 세부적인 협정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다.

74) “우리 나라에서 <<월남인민, 캄보디아인민, 라오스인민의 반미구국투쟁지지주간>>이 설정되었다,” 『로동신문』 (1972년 3월 13일).

75) 이신재, 앞의 책, p. 181 및 로동신문 1968년 8월 12일-1971년 12월 31일을 참고.

76) Vietnam National Archive III, Governmental Office Fond, Document No. 9235, Index No. 3. 여기서는 도미엔, 앞의 글에서 재인용.

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베트남은 파리평화협상으로 대표되는 항미통일정책에 대한 북한 정부의 입장·관점 변화라고 판단했다.⁷⁷⁾ 이후 베트남은 북한이 남북대화를 통해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남한 내 혁명세력의 기반을 흔드는 해로운 정책이라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적도 있었다.⁷⁸⁾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북한과 베트남은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활발히 진행하였다. 양국은 인민들의 유대 및 국가간 연대 강화를 위해 반미투쟁 주간 등 1년에 총 14가지의 사회·문화 행사를 진행하였다.⁷⁹⁾ 이 행사들은 인적·물적·정신적 자원이 동원된 북한 연내 최대, 최대 규모의 연대성 행사였고, 문화외교의 총력전이었다. 이 행사는 4월과 11월을 제외한 10개월이 행사 기간이었으며, 이 행사들을 위해 베트남의 인사들이 정기, 비정기적으로 북한을 방문하였다.

또한 1966년 가을 당시 김일성종합대학에서만 300명의 북베트남 및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온 유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었다.⁸⁰⁾ 1968년 상반기에만 2,500명이 넘는 베트남의 유학생, 실습생들이 북한의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대학, 원산농업대학⁸¹⁾ 등 북한 전역에서 교육을 받고

77) 도미엔, 위의 글.

78) 위의 글, p. 101.

79) 세부적인 행사 목록 및 시기는 김상범, “1960년대 북한의 대베트남 사회문화 교류에 대한 연구: 연대 강화 행사와 유학생·실습생 교육을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 제13권 제1호 (2021), pp. 174-178.

80) Rinn-Sup Shinn, John B. Folan, John w. Hederson, Marilyn G. Hopkins, Edward C. Knobloch, Robert L. Younglof, *AREA HANDBOOK for NORTH KOREA* (Washington D.C.: The American University, 1969), p. 155.

81) “조선인민은 반미공동투쟁에서 월남 인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원산농업대학에서 월남 인민의 반미구국투쟁을 지지 성원하는 교직원 학생집회가 있었다,” 『로동신문』 (1968년 2월 24일).

있었다.⁸²⁾ 이것은 북한이 동북아시아의 베트남이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었다. 이에 대해 베트남은 1968년 1월 푸에블로호 나포와 1969년 4월 EC-121기 격추로 인해 한반도 전쟁 위기가 고조되었을 때, 쿠바와 더불어 유일하게 양 사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하였다.⁸³⁾ 이러한 양국간의 군사, 도덕적 지지는 자주노선에 대한 대내외적 과시와 자주가 체제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음을 북한으로 하여금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4. 베트남전쟁기 북한 성명외교의 분석 및 평가

베트남전쟁기 북한의 성명외교는 자주라는 외교적 상징과 민족해방투쟁이라는 외교적 전략, 이에 기반한 자신들 주도의 한반도 통일이라는 외교적 목표를 동시에 제시하는 의미가 있었다. 북한은 체제 수립 이후 특정 시기, 특정 국가를 상대로 가장 많은 정부 차원의 성명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북한이 베트남전쟁

82) “주북 헝가리 부대사(공사) 켈로이 펜들로(Károly Fendler)가 외교부 부부장 에르데이(Erdélyi)에게 보내는 정보 보고, ‘베트남과 루마니아의 관점에서 본 북중 무역관계와 북조선 상황’, 1968년 1월 3일,” MOL, XIX-J-1-j Korea, 1968, 57. doboz, 1, 00345/1968. 여기서는 박종철·박성용·정은이, “헝가리의 북한 관련 기밀 해제문건에 관한 연구,” 『지역과 세계』, 제37권 제1호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3), pp. 82-83에서 재인용.

83) “조선에 대한 미제의 전쟁도발책동을 분쇄하자!-월남민주공화국 정부가 미제간첩선을 나포한 조선인민의 자위적 조치를 지지하며 미제의 전쟁도발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연대성을 표시하여 성명 발표,” 『로동신문』 (1968년 1월 30일); “미제의 온갖 전쟁도발책동을 분쇄하기 위해 투쟁하는 형제적 조선인민은 어떤 환경속에서도 월남 인민은 확고히 지지할 것이다-미제의 간첩비행을 규탄하여 발표한 우리 나라 정부성명을 지지하여 월남민주공화국 정부가 성명 발표,” 『로동신문』 (1969년 4월 28일).

을 자주라는 프리즘으로 세계질서를 바라본 결과였다. 자신들과 유사한 역사·제도적 배경을 공유하고 중소분쟁이라는 적대적인 외부 환경에 놓여져 있던 북한과 북베트남은 체제 생존과 통일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민족해방투쟁이라는 ‘혁명적 언어’를 공유하며 연대를 강화해 나갔다.

베트남전쟁기 북한 성명외교의 가장 큰 특징은 북한이 베트남전쟁을 한반도의 제2전선으로 인식해 단순한 관망자, 지원자가 아닌 적극적인 개입자의 위치에 있었음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북한은 미국에 의해 시작된 베트남전쟁에 대해 전쟁을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하려는, 즉 한반도에서 ‘제2의 한국전쟁’을 촉발시키려는 미국의 전략으로 이해했다. 동시에 남한 정부의 베트남전 파병은 분단상황에서 실전 전투 경험의 누적, 한·미·일의 군사동맹화 움직임 강화, 남한의 군사화 및 반공정신 강화로 남한 내 혁명 세력들의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북한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베트남전쟁을 자신들의 전쟁으로 인식하고 북베트남과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에 대한 다방면의 지원을 강화해 나갔다. 특히 북한은 남한 정부의 베트남 파병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였는데, 이것은 상술하였듯이 남한 정부의 파병 수위에 맞춰 베트남을 지원하겠다고 정부 성명을 통해 선언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또한 흥미로운 사실은 북한은 베트남전쟁에 공군 조종사들과 훈련 교관들을 파병하였는데 이는 당시 남한 정부 내 베트남전쟁에 공군 병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논의에 대한 결과로 보인다.⁸⁴⁾

84) 도미엔, 앞의 책, pp. 154-155.

베트남전쟁기 북한의 성명외교의 또 다른 특징은 성명의 실행력이 강했다는 점이다. 북한은 베트남전쟁기 정부 차원의 성명을 통해 북한은 베트남전쟁 초기 북베트남에 모든 형태의 지원 강화, 한미의 베트남전 파병 규모와 확대 시도에 맞는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하였다. 물론 북한이 베트남전쟁을 자신의 전쟁으로 인식한 결과로 보이지만 자주와 민족해방투쟁을 통한 양국 간 연대의 정당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북한의 신뢰적 조치였다.

상술하였듯이 북한은 1964년부터 1972년까지 매년 경제·기술 원조 및 군사적 무상원조 조약을 체결하고 총 40.7백만 루블 상당을 지원했다. 또한 북한은 퉁킹만 사건 이후 1966년 6월까지 북한 돈으로 대략 1억 7천 500만원 상당을 지원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1965년 6월부터 노동자들의 임금에서 2원씩을 공제하고 그 중 1원을 남베트남 지원금으로 축적해 나간 결과로 보인다.⁸⁵⁾ 이러한 실행력을 바탕으로 한 북한의 성명은 북한의 외교에서 중요한 전략과 목표 달성의 중요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었다. 그러므로 북한 정부 차원의 성명은 강력한 실행력이 포함된 개념임을 알 수 있다.

베트남전쟁기 북한의 성명외교를 통한 베트남에 대한 다방면에서의 지원은 미국과 중소로부터 북한 스스로를 보위할 수 있는 국가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과 동시에 타국의 혁명에 직접 개입, 지원해 줄 수 있는 소위 ‘완전히 자주적인 독립국

85) 통일연구원, 『독일지역 북한기밀문서집』 (서울: 도서출판 선인, 2006), p. 152. 1964년 12월 당시 사무직 종사자의 평균 임금은 45원이었으며, 군 장교가 120-150원, 광산업 및 철강공장 노동자가 90-100원이었다. 1964년 물가를 기준으로 1원은 쌀 20kg(배급) 혹은 밀가루 2kg(배급)과 사과 1kg을 살 수 있는 금액이었다. 공제된 2원 중 1원은 남베트남 지원금, 50전은 남조선의 혁명운동 지원금, 50전은 모내기를 위해 농촌으로 간 사람들을 돕기 위한 지원금으로 축적되어 갔다.

가’ 및 자신들을 강국으로 인식하고 행동하게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한 국가의 ‘역할(role)’은 행위와 타국과의 상호작용이라는 연관성을 전제로 그들이 행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⁸⁶⁾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인식은 자신들의 신념체계를 통해 국제질서를 바라본 결과였으며, 행위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한 국가의 역할은 ‘차지’하거나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며, 국력의 강함과 약함이 아니라 권리와 의무를 위한 행위에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⁸⁷⁾ 종합적으로 한 국가의 역할은 역할 당사자의 신념, 정세 인식과 평가, 역할 대상자에 대한 역할 당사자의 행동 의지 등이 중요하다.

K. J. Holsti에 따르면, 사회주의 국가 중 ‘혁명과 해방의 요새·보루’라는 역할 인식을 하고 있는 국가는 국제적 차원에서 타국의 혁명을 지원하기 위해 혁명투쟁 세력들의 리더들을 교육, 해외 혁명세력들에게 군대를 보내거나 물자를 제공, 해외 정치 기구 등을 조직, 운용 그리고 대규모 이데올로기 선전선동 프로그램 활용 등 ‘세계혁명을 위한 강력한 기지’, 즉 ‘세계혁명의 리더’를 의미했다.⁸⁸⁾ 이것은 중국과 소련의 고유 영역이기도 했다. 흥미롭게도 북한은 베트남전쟁기 소련과 중국이 수행한 위와 같은 국가 역할을 자처하고 이를 적

86) Ralph Linton, *The Study of Man* (New York: Appleton-Century, 1936), p. 114.

87) Ralph H. Turner, “Role-Taking, Role Standpoint, and Reference Group Behavior,”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61, No. 4 (January 1956), pp. 316-317.

88) K. J. Holsti, “National Role Conceptions in the Study of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14, No. 3 (September 1970), p. 261, 292.

극적으로 실행해 나갔다.⁸⁹⁾ 다시 말해, 북한은 이 시기부터 자신들을 사회주의 강대국으로 인식하고 이에 기반해 더 강력한 자주와 이를 위한 전세계 민족해방투쟁에 대한 지원을 더욱더 강화해 나갔다.⁹⁰⁾

북한은 베트남전쟁기 성명외교를 통해 냉전기 국제질서 하에서 자주노선과 민족해방투쟁 지원을 통해 그 실효성을 증명해 나갔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한의 성명외교는 북한의 외교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주’와 ‘연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외교적 수단이었다. 북한의 성명외교는 북한식 사회주의 경험적-객관적 신념에 기초하여 그들의 외교에서 그들의 신념을 어떻게 강화·발전시켜 나갔는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이해 포인트이다.

5. 결론

북한의 성명외교는 자주라는 상징과 민족해방투쟁이라는 전략이 포함된 개념이었다. 북한은 미국이라는 공통의 적, 베트남과의 유사한 역사-제도적 배경, 미국에게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베트남전쟁이 가지는 반제혁명의 잠재력과 자신들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위해 활용가치가 높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북한의 대베트남 지원은 남북 베트남 인민들에게 베트남전쟁이 정의의 전쟁으로 인식시키고 전쟁사기를 양양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89) Ibid, p. 296.

90) “사설-공화국 창건 20주년을 우리 혁명위업의 새로운 승리를 위한 힘찬 투쟁으로 맞이하자.” 『로동신문』(1968년 8월 17일).

북한은 성명외교를 통해 반미의식을 공유하고, 지도자의 정통성 강화와 동원의 정당성을 확보, 정치, 경제, 군사적 협력을 통해 상호 국가 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들의 공동의 목적은 체제 생존, 자유와 독립이었다. 물론 당시 북한과 북베트남 모두 중국과 소련의 경제·군사적 원조가 미국의 위협에 대항하기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자주라는 상징과 민족해방투쟁이라는 전략을 공유한 양국 간 연대는 사회주의의 승리가 경제·군사적 지원이라는 객관적 요소보다는 정치·도덕적·정신적 지원이라는 주관적 요소에 달려 있다는 양국 국가지도자들의 신념, 실용성, 의지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북한의 성명외교를 통한 대베트남 지원은 미국의 전쟁 정책이 국제평화에 반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이것은 서방세계와 비공산권 국가들에게 ‘한국전쟁’ 회상 전략이었으며, 미국과 서방 선진국에 막대한 정치, 경제, 외교적 부담을 가중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또한 중국과 소련을 하나로 묶고 사회주의 전체의 단결을 통해 더 강력한 정치, 경제·군사적 지원을 베트남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더 나아가 기존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혁명보다 민족해방투쟁을 통한 세계혁명이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더 현실적이며, 이 두 혁명 역량은 상호 존중과 인정 하에 세계혁명을 위해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도도 있었다.

또한 베트남이 북한 등 타 국가들의 지원병 파병 의사를 포함한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자신들의 전쟁 수행 정책의 정당성과 이에 기반해 국내에서 자원병을 모집하기 위한 우호적인 대내 환경을 조성해 준 의미도 있었다. 북한의 지속적인

지원병 파병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지원 선언과 베트남의 지속적인 감사 표현은 단순히 외교적 의례만은 아니었다. 이것은 자주에 기반해 민족해방투쟁을 통해 약소국 간의 위기 인식을 공유함과 동시에 내부의 정치 투쟁과 생산과 동원에 대한 명분과 정당성을 부여하는 정치적 의미가 있었다.

북한의 성명외교는 북한의 국가목표와 전략을 이해하고 그들의 이행과 우리의 대응을 연구하는데 학문적, 정책적으로 중요하다. 상술하였듯이 북한의 성명에는 상징과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북한에서 발표하는 성명이 가지는 상징과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들의 행위를 예측하여 이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지(어떻게 대응해 왔는지)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성명은 레토릭을 넘어 현실이 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우리는 북한이 발표한 외교적 성명에 대해 외교적 수사로 치부하고 학문적, 정책적으로 피로감을 느껴온 것이 사실이다. 북한의 성명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 신념에 더해 대내외 정세 인식, 평가가 더해져 새로운 신념체계가 어떻게 형성, 발전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학문적 단서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된 정부 성명에 대한 분석, 냉전기부터 현재까지 대남 관련 정부 성명에 대한 분석 등 성명과 관련된 연구의 주제와 범위는 매우 다양하다.

상술하였듯이 성명외교는 상징과 전략을 통해 북한이 추구하는 외교적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며, 그것은 우리의 대응전략과 연결되어있다. 현재의 미중 전략적 경쟁, 동북아 및 한반도 내 군비 경쟁, 북한의 소위 3중고 상황(코로나19, 자연재해, 경제제재)에서 북한의

성명은 북한과 남한, 국제사회와 소통하는 유일한 수단이 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왜 북한의 성명외교가 중요한 지를 말해준다.

〈참고문헌〉

1. 사료

『로동신문』

2. 국문

김용현 엮음, 『남북한 군사총돌로 본 분단 70년사』, 도서출판 선인, 2018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1961년 9월 11일),” 『김일성 저작집 15』,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_____,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서 한 보고, 1966년 10월 5일),” 『김일성 저작집 20』,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도미엔, 『붉은 혈맹: 평양, 하노이 그리고 베트남전쟁』,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UCI: G901:A-0010797508

_____, “1975년 베트남전 종전과 북한정부의 대응: 베트남 자료를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 48, 2014

DOI : 10.37091/ewhist.2014..48.004

박종철·박성용·정은이, “헝가리의 북한 관련 기밀해제문건에 관한 연구,” 『지역과 세계』 37, 2013

DOI : 10.33071/ssricb.37.1.201304.65

박태균, 『베트남전쟁-잊혀진 전쟁, 반쪽의 기억』, 한겨레출판, 2015

UCI: G901:A-0006568080

백성호, “북한 외교의 형성과 전개,” 고유환 엮음, 『로동신문을 통해 본 북한 변화』, 도서출판 선인, 2006

UCI: G901:A-0006127840

- 이신재, 『북한의 베트남전쟁 참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UCI: G901:A-0008082242
-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증보판)』, 사회과학출판사, 2006
- 신정화, “북한 ‘정부성명’의 대외정책적 함의-1990년대 이후 대미일
 정부성명을 중심으로.” 『통일부 신진연구자 북한 및 통일 관
 련 논문집 1: 정책, 정치, 통일부』, 2002
- 정규섭, 『북한외교의 어제와 오늘』, 일신사, 1999
 UCI: G901:A-0008443854
- 정기중, 『총서 <<불멸의 력사>> 장편소설 운명』, 문학예술출판사, 2012
- 조진구, “중소대립, 베트남전쟁과 북한의 남조선혁명론, 1964-68,”
 『아세아연구』 46, 2003
 UCI: G704-000745.2003.46.4.009
- 한국학술정보 엮음, “THE PRESIDENT’S DAILY BRIEF_17_August
 _1967,” 『CIA 기밀해제 총서(CIA’s Declassified Documents)
 30: 존슨 대통령 일일 보고서, 1967_07-09』, 한국학술정보, 2017
 UCI: G901:A-0008048238
- 히가이 다이사쿠, 서각수 옮김, 『적과의 대화-1997년 하노이, 미국과
 베트남의 3박 4일』, 윈더박스, 2018
- 조선로동당출판사, 『대중정치용어사전』, 조선로동당출판사, 1964

2. 영문

Ang Cheng Guan, “The Vietnam War, 1962-64: The Vietnamese Communist Perspective,” *Journal of Contemporary History*, Vol. 35, No. 4 (October 2000).
<https://doi.org/10.1177/00220094000350>

Fauriol, Georges, Eva Loser(eds), *Cuba: The International Dimension* (New Brunswick and London: Transaction Publishers, 1990).

Gills, B. K, *Korea verse Korea—A Case of Contested Legitimac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6).

Holsti, K. J., “National Role Conceptions in the Study of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14, No. 3 (September 1970).

Kim, Sangbum, “North Korea’s Aid to Cuba during the Cuban Missile Crisis,” *Pacific Focus*, Vol. 37, No. 3 (December 2022).

doi: 10.1111/pafo.12216

Leighton, *Soviet Propaganda As A Foreign Policy Tool* (Lanham: Freedom House).

Linton, Ralph, *The Study of Man* (New York: Appleton—Century, 1936).

Mehta, Harish C, *People’s Diplomacy of Vietnam: Soft Power in the Resistance War, 1965–1972* (Newcastle upon Tyne: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2019).

Shinn, Rinn-Sup , John B. Folan, John w. Hederson, Marilyn G. Hopkins, Edward C. Knobloch, Robert L. Younglof, *AREA HANDBOOK for NORTH KOREA* (Washington D. C.,: The American University, 1969).

Szalontai, Balázs, “In the Shadow of Vietnam: A New Look at North Korea’s Militant Strategy, 1962–1970,” *Journal of Cold War Studies*, Vol. 14, No. 4 (Fall 2012).

https://doi.org/10.1162/JCWS_a_00278

Stryker, Sheldon, “The Vitalization of Symbolic Interactionism,” *Social Psychology Quarterly*, Vol. 50, No. 1 (March 1987).

<https://doi.org/10.2307/2786893>

Tranfield D., D. Denyer, P. Smart, “Towards a Methodology for Developing Evidence-Informed Management Knowledge by Means of Systemic Review,” *British Journal*

- of Management, Vol. 14(2003).
<https://doi.org/10.1111/1467-8551.00375>
- Turner, Ralph H., "Role-Taking, Role Standpoint, and Reference Group Behavior,"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61, No. 4 (January 1956).
- Whiting, Allen S. and Robert F. Dernberger, *China's Failure: Foreign Policy and Economic Development in the Past -Mao Era* (New York: McGrawHill, 1977).
- Whitehead, A. N., "Uses of Symbolism," *Daedalus*, Vol. 87, No. 3 (Summer 1958).
- White, Marilyn Domas and Emily E. Marsh, "Content Analysis: A Flexible Methodology," *Library Trends*, Vol. 55, No. 1 (Summer 2006).
 10.1353/lib.2006.0053
- Wydra, Harald, "The Power of Symbols-Communism and Beyond,"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tics, Culture, and Society*, Vol. 25, No. 1 (September 2012).
 DOI 10.1007/s 10767-011 -9116-x
- Castro, "Discurso pronunciado en el acto clausura de la Primera Conferencia de Solidaridad de los Pueblos de Asia, África y América Latina (Tricontinental), en el Teatro Chaplin, La Habana, el 15 de enero de 1966. (Español)," <http://www.cuba.cu/gobierno/discursos/1966/esp/f150166e.html> (검색일: 2019. 7. 20).
- Pribbenow Merle, "North Korean Pilots in the Skies over Vietnam," (November 2011). <https://www.wilsoncenter.org/publication/north-korean-pilots-the-skies-over-vietnam>(검색일: 2014. 3. 5).

(Abstract)

A Study on the Statement Diplomacy of North Korea(1964-1972)

Kim, Samg-Bum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look at how North Korea employed government-level declarations for diplomacy during the Vietnam War, as well as the key contents,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of those statements. Foreign affairs-related government-level statements in North Korea can be broadly classified as government statements, foreign ministry statements, and foreign ministry spokesperson statements. The government statement was issued as a top-level strategic statement, whilst the Foreign Ministry and its spokesman issued a tactical statement in support of the government position.

There were 113 North Korean government-level comments issued between 1964 and 1972. In particular, once in 1964, nine times in 1965, fourteen times in 1966, fourteen times in 1967, twelve times in 1968, fourteen times in 1969, thirteen times in 1970, twelve times in 1971, and twenty-four times in 1972. The statements focused on the US invasion of Vietnam, North Korea's free aid to Vietnam, the formation and strengthening of an anti-Japanese coalition between Vietnam, Cambodia, and Laos, and support for the Vietnamese government's position in the Paris peace talks.

The concept of North Korea's statement diplomacy incorporated the emblem of independence as well as the strategy of national liberation struggle. North Korea sought to share and respond to the crisis through anti-Americanism, to strengthen leaders' legitimacy, to secure internal production and mobilization, to unite socialist rights through a strategy to recall the Korean War, and to recognize the capabilities of the national liberation struggle in the global revolution through statement diplomacy.

Keywords : The Vietnam War, North Korea, Statement Diplomacy, Statement of Government, Statement of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tatement by Foreign Ministry Spokesman